

# 韓國圖書館史研究抄 (十)

朴 熙 永

目 次	
第三期 燕山君~明宗 (1495~1567)	12) 書院
第一節 機關과 施設	13) 書肆
1) 校書館	第二節 鑄字
2) 校書館文武樓	第三節 實錄
3) 藝文館	1) 春秋館
4) 弘文館	2) 實錄閣
5) 讀書堂	3) 實錄
6) 造紙署	4) 史庫
7) 成均館尊經閣	5) 實錄廳
8) 隆文樓, 隆武樓	第四節 佛典
9) 秘書司	第五節 圖書撰修 및 刊行
10) 文書樓, 文書庫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11) 春秋館	第七節

## 第三期

第三期는 第十代 燕山君으로 부터 第十  
三代 明宗까지에 70餘年間을 計하였다.

李朝文化는 第一期와 第二期의 約百年  
間에 完成하였으며 한편 政治面에서 불  
폐도 이 사이에 王權은 確固하게 되었는  
데 建國初부터 文學을 崇尚하면서百年이  
經過한 第三期에 드러서서 부터는 學問의  
發達과 더불어 次次로 學問에는 學閥이  
생기게 되었다.

몇몇 有力한 사람에 依하여 또는 多數  
의 儒林에 依하여 私學機關으로서 學校라  
고 할수있는 書院이 設立되었다. 紹修書  
院이 建立되자 이어서 首陽書院, 臨臯書

院, 陶山書院, 退溪書院等의 書院이 連이  
어 建立되어 私學으로서 學徒講習의 場所  
가 마련되었는데 이 書院들은 次次로 黨  
論의 策源地가 되었다.

第三期中 所謂 四大士禍가 있었는데 燕  
山君 4年(1498)의 戊午士禍, 燕山君 10年  
(1504)의 甲子士禍, 中宗14年(1519)의 己  
卯士禍, 仁祖元年(1545)의 乙巳士禍이라  
는 士禍이다. 이士禍들은 書院의 設立과  
또 나아가서 後에 이어나는 黨派, 黨爭과  
도 因果關係가 된다고 보는 說이 있듯 第  
三期中 特記할 일은 書院의 建立이라고  
할수 있다.

第三期는 燕山君이 登極하면서 부터 惡  
政이 繼續되어 政治는 極度로 紊亂하고

道德은 墟落하여 國勢는 衰頽하여 감에 따라 文弱이 極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燕山君 다음의 代인 中宗부터는 中興하는 것 같으나 連이온 士禍等으로 中興하지 못하고 있었다.

### 第一節 機關과 施設

#### 1) 校書館

校書館은 第一期에서 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校書館에서는 繼續 書籍을 印出하였는데 그中 몇件을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燕山君10年(1504)閏4月28日 端午帖子를 印進하였고, 中宗11年(1516) 9月3日 治平要覽의 印刷를 墓하였다는데 그當年은 甚한 困年이어서 校書館의 書籍 印出을 停止하고 있었으나 治平要覽만은 印刷도록 하였다. 中宗17年(1522) 2月25日 皇后內訓을 印出하였고 中宗27年(1532) 9月12日에는 崔世珍이 女訓을 譯하여 進上하였음에 이를 印出케 하였다. 또 中宗31年(1536) 11月2일에는 宋璵이 明으로 부터 購來한 文苑英華를 校書館으로 하여금 開刊케 한 記錄이 있다. 中宗4年 12月13일에는 平安道觀察使가 儒生에 分授하기 為하여 校書館 所藏의 通鑑, 四書, 五經의 下送을 請한 일도 있다.

燕山君 9年(1503) 2月13일에는 司匱院主簿崔耕老가 上述한 말 中에 商品賣買에 있어서 狹祚한 商人과 恩惑한 國民을 為하여 市中의 物價를 詳定해서 校書館 冊價의 例에 따라 板에 刻하여 市中에 거려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市准의 法을 알리게 하여 賣買를 올바르게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記錄으로 다른 여러 物價보다도 書籍의 價格을 먼저 國家에서 定

하였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것은 興味있는 記錄이다.

① 燕山君日記 卷53 燕山君10年 閏4月 戊子條

② 中宗實錄 卷26 中宗11年 9月辛巳條

③ " 卷44 中宗17年 2月壬寅條

④ " 卷73 中宗27年 9月丁巳條

⑤ " 卷82 中宗31年11月甲寅條

⑥ " 卷10 中宗 4年12月庚子條

⑦ 燕山君日記 卷48 燕山君9年2月 庚戌條

#### 2) 校書館文武樓

校書館에 있는 書籍을 保藏하는 建物을 文武樓라고 稱하였다. 以前의 記錄에는 單只 校書館에 藏하였다고만 있었던 것이 燕山君 5年(1499) 8月22日 洪貴達의 上疏 文中에 文武樓라는 名稱이 나온 以後에는 여러번 文武樓라는 記錄이 나타나고 있다. 考究其내 校書館에서 印出한 書籍과 또 印刷를 為한 資料로서의 여러 書籍等의 數가 많아져서 校書館으로서의 書籍을 保管할 建物이 必要하게 된것이 아닌가 推測할수 있으며 또 文武樓라고 稱하게 된것은 印出하는 書籍의 內容이 文과 武가 모두 必要하다고 해서 文武樓라고 稱하게 된것이라고 아울러 推測된다. 文武樓에 關한 記錄中 그 몇件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燕山君5年(1499) 8月22日 左贊參이 있던 洪貴達이 여러 問題를 上疏한 그中の 한가지 講經時에는 成均館尊經閣의 書冊을 使用하지 말고 校書館文武樓所藏의 書冊을 使用할 것을 請하였다. 또 中宗9年(1514) 12月2日 成均館의 尊經閣이 失火하여 尊經閣의 所藏圖書가 모두 燒失되어서 新閣을 速히 建立하여 四書五經, 通鑑, 性理大全을 새로 印하여 藏하고 綱目, 歷代史, 諸子百家와 其他 雜書는 文武樓로

부터 移藏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들은 明으로 부터 사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中宗 16年(1521) 2月2日에는 大小字의 孝經各三十件을 文武樓로 부터 內宮으로 드리오게 하였는데 中字만 있고大小字로 印刷된 孝經이 없어大小字로 速히 印刷하게 하였고 中宗24年(1529) 7月3日에는 千字, 類合及 懸吐小學을 多數 印出하여 各二十件을 入內케 하고 나머지는 文武樓에 藏하게 하였다. 또 明宗13年(1558) 4月22日에는 大典之典, 繢典, 繢集을 印出하여 文武樓及 法司에 藏하게 하였다.

- ① 燕山君日記 卷34 燕山君5年8月 己酉條
- ② " " " "
- ③ 中宗實錄 卷21 中宗9年12月 庚寅, 辛卯壬辰, 丙申, 丁酉條
- ④ 中宗實錄 卷41 中宗16年2月 乙酉, 丁亥條
- ⑤ " 卷65 中宗24年7月 丙申條
- ⑥ 明宗實錄 卷24 明宗13年4月 己亥條

### 3) 藝文館

藝文館은 第一期로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燕山君11年(1505) 1月10日 承旨 姜渾의 啓에 依하여 弘文館의 藏書를 藝文館으로 移轉하여 保管하게 하였다.

- ① 燕山君日記 卷57 燕山君11年 正月丙申條

### 4) 弘文館

弘文館은 第二期로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弘文館은 成宗10年(1479)以後 集賢殿의 일을 繼承하였는데 燕山君5年(1499) 2月22日 國朝寶鑑을 繢修하였는데 中宗 8年(1511) 8月12日에는 天下輿地圖를 進하였고 中宗17年(1522) 5月27日에는 東宮啓蒙을 撰進하였으며 明宗元年(1546) 11月10일에는

日에는 心學圖說과 大學圖說을 撰進하고 있다. 中宗7年(1512) 9月6日 弘文館所藏의 書冊을 進하였는데 그 書名은 다음과 같다.

東人詩集, 四住集, 保閑集, 樞軒集, 大虛亭集, 陽村集, 稼亭集, 及菴集, 雪谷集, 霽亭集, 息若集, 關東瓦注, 柳菴集, 義谷集, 復齋集, 益齋辭藁, 圓齋集, 栗亭集, 李相國集, 獨谷集, 春亭集, 雙海堂集, 桂苑筆耕, 牧隱集, 拭疣集, 陶隱集, 晉山世藁等이다.

- ① 燕山君日記 卷32 燕山君5年2月壬子條
- ② 中宗實錄 卷14 中宗6年8月己丑條
- ③ " 卷44 中宗17年5月壬申條
- ④ 明宗實錄 卷4 明宗元年11月癸亥條
- ⑤ 中宗實錄 卷16 中宗7年9月丁丑條

### 5) 讀書堂

讀書堂은 第一期로부터 繼續되는 機關이다.

讀書堂과 賦暇讀書의 制는 燕山君時代에 廢止하였다가 中宗5年(1510)에 다시 賦暇讀書의 制가 復設되었고 讀書堂은 豆毛浦에 改修하게 되었다.

### 参考:

- 中宗實錄 卷10 中宗5年正月丙子條
- " 卷11 中宗5年4月丁亥條
- " 卷12 中宗5年12月乙酉條

### 6) 造紙署

造紙署는 第一期로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中宗20年(1525) 5月15일에는 造紙署가 製造한 종이가 甚히 質이 나빠져서 그 官員을 調查하여 罷캐하여 紙質向上에 留意하였는데 中宗36年(1541) 6月25일에는 金安國이 새로 創造한 苔紙 5束을 進하면서 그 製造法을 啓하였는데 造紙署에 命하여

이法에 依하여 製紙토록 命하였다. 한편 明으로 부터는 如前히 종이의 進獻을 要求하여 왔었는데 明宗2年(1547)4月18일에 明으로 부터 咨文紙一千丈의 進獻의 要求가 있어 造紙署가 이를 製造하였다고 한다. 明宗元年(1546)11月9日 明의 皇帝가 咨文紙를 求하여 왔으므로 六百張을 보냈고 明宗8年(1553)閏3月8일에는 明에 咨文紙一千張을 보내고 있다.

한편 燕山君元年(1495) 6月27일에는 荘精紙 千卷을 入內케 하여 佛經을 印하는데 使用하였고 또 燕山君11年(1505) 11月29일에는 火砲를 마련하기 爲하여 慶尙, 全羅, 忠公道에 命하여 白紙五萬卷을 바치게 하였다. 이와같이 다른 것을 마련하기 爲하여도 製紙케 하였던 것이니 大端히 많은 종이가 生產되어야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中宗實錄 卷54 中宗20年5月癸酉條

② " 卷95 中宗36年6月庚辰條

③ 明宗實錄 卷5 明宗2年4月己亥條

④ 明宗實錄 卷4 明宗元年11月壬戌癸亥條

⑤ " 卷14 明宗8年閏3月 丁未, 壬子, 甲寅條

⑥ 燕山君日記 卷6 燕山君元年6月戊寅, 己卯條

⑦ " 卷60 燕山君11年11月庚戌條

## 7) 成均館尊經閣

成均館은 우리나라 古來로 부터 傳來하는 大學으로서 新羅時代에는 國學이라고 하다가 後에 太學監이라 하였고 高句麗時代에는 太學이라 하였으며 高麗時代에는 第6代 成宗부터는 國子監이라고 하다가 第26代 忠烈王은 國學이라고 하였고 第27代 忠宣王부터는 成均館이라고 하였다. 第31代 恭愍王은 國子監이라고 하다가 얼마후 다시 成均館이라 復稱하였다.

李朝時代에 드러서서는■大概 高麗의 制度를 따랐으므로 成均館이라고 하다가 燕山君代에는 成均館을 廢止하고 成均館의 官員들中 博士以下의 官員을 다른 司에 나누어 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음 代인 中宗은 곧 이를 復舊하였다. 成均館은 우리나라 最高의 學府였으므로 이 成均館에는 따로 附屬된 圖書를 保管하는 閣이 있었는데 이것이 成均館尊經閣이다. 校書館 文武樓에서도 述한바와 같이 中宗9年(1514)12月2日 成均館尊經閣이 失火하여 그所藏書籍이 ①燒盡하였으므로 大成殿에서 安神祭를 行하고 速히 閣을 새로 構築하여 四書五經, 通鑑, 性理大全을 印藏하고 緝目, 歷代史, 諸子百家와 그他雜書는 文武樓로 부터 移藏하고 나머지 闕하는 것들은 明으로 부터 사와서 藏하도록 한것을 보아 成均館尊經閣에도 많은 數의 圖書가 所藏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尊經閣은 單只 書庫의 役割뿐이었다고 할수 있으나 圖書館史의 見地에서 볼때 成均館이 大學이라면 成均館의 尊經閣은 大學圖書館이라고도 할수 있다.

① 中宗實錄 卷21 中宗9年12月 庚寅, 辛卯壬辰, 丙申, 丁酉條

## 8) 隆文樓, 隆武樓

景福宮안에 圖書를 藏하던 곳이 여러곳 있었는데 그中の 하나로 隆文樓에도 藏書하였다. 그러나 燕山君2年(1503)3月28일에는 隆文樓의 藏書를 隆武樓에 ①移藏하게 되었다.

隆文樓, 隆武樓는 景福宮 앞 左右에 있었다.

① 燕山君日記 卷49 燕山君9年3月乙未條

② 學園社刊 大百科事典 卷1 p.259 경복궁條

### 9) 秘書司

燕山君12年(1506) 2月11日 內出書籍의  
 移藏處를 秘書司라고 稱하였다고 하는데  
<sup>①</sup> 内出書籍이라 함은 王이 不必要한 圖書를  
 내보내서 保管하라는 그圖書를 内出書籍  
 이라고 한것이 않인가? 한다.

① 燕山君日記 卷61 燕山君12年2月辛未條

### 10) 文書樓, 文書庫

文書를 取扱하는 官署로서 承文院이라는  
 官署가 李朝建國初부터 있었다. 그러나  
 각官署에도 個別의 文書庫가 있었다.

中宗23年(1528)12月10日 밤에 불이 나서 議政府의 文書樓에 保管되었던 奴婢正  
<sup>①</sup> 案과 久遠의 謄錄이 燃失되었으며, 中宗20年(1525)5月15日 漢城府의 文書庫가 燃  
<sup>②</sup> 失되었다는 바, 이것으로 보아 文書樓 또는 文書庫라는 名稱의 文書庫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① 中宗實錄 卷64 中宗23年12月戊寅條

② " 卷54 中宗20年 5月癸酉條

### 11) 春秋館

第3節 實錄에서 詳述함

### 12) 書院

第三期中에서 特記할 史實은 書院의 設立이라고 하겠다.

中宗38年(1543)에 周世鵬이 慶尙道豊基郡  
 守로 있을때 白雲洞書院을 設立하였는데  
 郡守였던 李滉이 이事業을 監司에게  
 알려서 措置된 것이 明宗5年(1550) 2月11  
<sup>①</sup> 日에 紹修書院의 扁額이 下賜되고 아울러  
 四書, 五經, 性理大全等의 圖書가 下  
 賜되었고 또 明宗7年(1552)3月28일 다시  
<sup>②</sup> 綱目과 事文類聚가 下賜되었는데 이것이  
 書院의 嘴矢이고 또 書院의 扁額을 下賜

한 嘴矢이다. 紹修書院의 모든 規制는 모  
 든 朱子白鹿洞書院의 例를 따어서 定하였다.

周世鵬은 明宗5年(1550) 海州에다 高麗의 崔沖을 祀하여 家藏書帙을 가지고 首陽書院을 設立하였는데 明宗10年(1555) 2月25일 扁額과 書籍을 下賜하였다.

明宗9年(1554)6月14日 慶尙道 永川의 生員 金應生이 그 郡內에 있는 鄭夢周의 生家에다 家廟와 書院을 設立하였는데 明宗9年(1554)10月10일에는 臨阜書院이라는 扁額을 下賜하였다.

明宗15年 李滉이 鄉里 禮安에 陶山書院을 設立하였다.

明宗21年(1566)6月15일 蘭溪書院에 扁額을 下賜하였다.

① 明宗實錄 卷10 明宗 5年 2月丙午條

② " 卷13 明宗 7年 3月庚戌條

③ " 卷18 明宗10年 2月庚寅條

④ " 卷16 明宗 9年 6月癸未, 甲申條

⑤ " 卷17 明宗 9年10月丁丑條

⑥ 退溪年譜 卷1

⑦ 明宗實錄 卷33 明宗21年 6月甲戌條

### 13) 書肆

中宗14年(1519) 7月3일 侍講官 李希閔이 外方鄉校의 儒生들이 讀書를 願하여 도書冊이 甚히 적으니 書肆를 設立하여 圖書를 많이 廣布하기를 請하여서 부터 書肆이 생기는 動機가 되었다.

書肆라 함은 書店인 것이다.

②

① 中宗實錄 卷36 中宗14年7月甲午條

② 諸橋轍次著 大漢和辭典 書字條

## 第二節 鑄字

中宗10年(1515)11月4일 鑄字都監을 新

①

設하여 唐本 資治通鑑의 字樣을 본따서 銅字를 鑄造토록 하여 中宗11年(1516) 正月22日 드디어 鑄字都監을 新設하여 鑄字하였는데 中宗11年(1516)이 丙子年이므로 이때 鑄字한 活字를 丙子字라고 稱하고 있다. 또 이때 世宗16年의 甲寅字와 成宗15년의 甲辰字의 雕刻한 것을 改鑄하여 朱文公集, 順西山讀書記, 朱子語類, 資治通鑑, 胡三省註歐陽文忠公集, 三國志, 南北史, 國語, 梁書, 隋書, 五代史, 遼史, 金史, 元史, 戰國策, 伊洛淵源錄, 二程全集等을 印出케 하였고 明으로 부터 書籍을 널리 求하여 本國의 遺經逸書를 모아 각道에 分定하여 이를 開刊케 하였다.

새로 鑄字된 活字로 中宗15年(1520)6月 10일에는 大字로서 吳子를 印出하였고 中宗16年(1521)2月2일에는 孝經을 大小字로 ③ ④ 印出하였다.

- ① 中宗實錄 卷23 中宗10年11月甲申, 丙戌條
- ② " 卷23 中宗11年正月甲辰條
- ③ " 卷39 中宗15年 6月丙寅條
- ④ " 卷41 中宗16年2月乙酉, 丁亥條

### 第三節 實錄

#### 1) 春秋館

春秋館은 第一期로 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春秋館에서는 燕山君5年(1499) 2月22日 成宗實錄을 撰進하였고 中宗14年(1519) 7月13日 京外史庫의 實錄을 曝曬할 것을 啓하였으며 中宗33年(1538) 11月13일에는 星州史庫가 全燒하였기에 春秋館 所藏의 實錄을 謄書하기 始作하여 中宗35年(1540)

4月17일 이事業을 畏하여 奉安使를 遣하였다.

- ① 燕山君日記 卷32 燕山君 5年2月壬子條
- ② 中宗實錄 卷36 中宗14年 7月甲辰, 丁未條
- ③ " 卷89 中宗33年11月癸未, 丙戌條
- ④ " 卷93 中宗35年 4月戊寅條

#### 2) 實錄閣

實錄閣은 第一期로 부터 繼續되는 閣이다.

中宗1年(1506)9月10일에는 中宗의 先王인 燕山君 自製의 詩集과 實錄閣 所藏의 敬善文을 燒毀하였다.

- ① 中宗實錄 卷1 中宗元年9月丙戌條

#### 3) 實錄

第三期는 燕山君으로 부터 明宗까지를 記載하였으므로 第三期中에 이루어진 實錄은 燕山君의 先王인 成宗, 燕山君, 中宗, 仁宗의 四代朝의 實錄이 이루어 진 것이다.

成宗實錄은 燕山君元年(1495)4月19일부터 撰修를 始作하였는데 途中 史草의 內容으로 因하여 戊午士禍가 일어 나기는 하였으나 撰修官이 變更되고 撰修는 繼續되어 燕山君5年(1499)2月22日 297卷을 春秋館이 進하였다.

燕山君을 實錄이 아니고 燕山君日記라고 日記란 名稱이 되어 있는데 이는 王이 廢位되었을 때 廢任원 王의 實錄은 日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日記라고 稱하였을 뿐 그 體裁나 價値에 있어서는 實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燕山君日記는 中宗2年(1507)6月부터 編纂을 始作하여 中宗

4年(1509) 9月12일에 63권을 進하였다.

中宗實錄은 明宗元年(1546) 가을에 仁宗實錄과 함께 同時に 撰修를 始作하여 明宗5年(1550) 10月6일에 이를 完成하였는데 中宗實錄은 105卷 仁宗實錄은 2卷을 각각 進하였다.

中宗4年(1509) 5月6日 成宗實錄中 成宗行狀에 誤印이 많아서 이를 改印도록 하였다.

- ① 燕山君日記 卷4 燕山君元年 4月壬申條
- ② 燕山君日記 卷32 燕山君5年 2月壬子條
- ③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의 凡例
- ④ 中宗實錄 卷9 中宗4年9月辛丑條
- ⑤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 中宗, 仁宗實錄의 凡例
- ⑥ 明宗實錄 卷8 明宗5年10月己巳條
- ⑦ 中宗實錄 卷8 中宗4年5月丁酉, 辛丑條

#### 4) 史庫

史庫는 第一期로 부터 繼續되는 库이다. 燕山君5年(1499) 2月22日 春秋館이 摄進한 成宗實錄을 同年3月15일에는 洪貴達等을 遣하여 外史庫에 奉安하였다.

中宗12年(1517) 8月19日 星州史庫에 비가 새서 史官을 遣하여 이를 審한바 있었는데 그後 中宗33年(1538) 6月에 星州史庫가 全燒하였다는 慶尙監司의 狀啓를 받고同年11月13日 敬差官을 遣하여 星州守令, 史庫의 官員을 推考하고 別途로 史官을 遣하여 이를 審하게 하여 中宗34年(1539) 正月14일에는 星州推考敬差官 趙士秀가 그 結果를 啓하기를 星州史庫의 火災原因是 官奴 從末等이 史庫樓上에 聚宿하는 山鳩를 잡기 為하여 불을 使用한 까닭에 火災가 나서 全燒하였다고 하였다. 同年 6月15일에는 星州史庫에 保管할 世宗, 成

宗實錄은 印刷하고 太祖, 恭靖王, 文宗, 世祖, 睿宗實錄과 魯山君, 燕山君日記는 書字토록 하여서 中宗35年(1540) 4月17일 實錄廳이 實錄의 書字를 畢하였으므로 蘇世讓을 奉安使로 命하여 星州史庫에 奉安케 하였다.

明宗5年(1550) 10月6日 中宗, 仁宗實錄의 撰修가 끝나서 忠州, 星州, 全州史庫에 각각 奉安하였다.

史庫의 曝曬라는 行事는 大端히 重要한 行事이었던 것으로 例를 들면 中宗23年(1528) 7月17일에는 驛路의 弊를除外하기 為하여 當年에 限하여 外史官으로 하여 금史庫를 曝曬케 하고자 하였으나 舊例에 依하여 京史官을 遣하여 曝曬토록 되었다는 記錄으로 미루어 알수 있다.

- ① 燕山君日記 卷32 燕山君5年 2月壬子條
- ② " 卷32 燕山君5年 3月己巳條
- ③ 中宗實錄 卷29 中宗12年 8月 壬戌條
- ④ " 卷89 中宗33年11月丙戌條
- ⑤ " 卷89 中宗33年11月癸未條
- ⑥ " 卷89 中宗34年正月癸未條
- ⑦ " 卷91 中宗34年6月辛亥條
- ⑧ " 卷93 中宗35年4月戊庚條
- ⑨ 明宗實錄 卷10 明宗5年10月己巳, 庚午條
- ⑩ 中宗實錄 卷62 中宗23年7月丙戌條

#### 5) 實錄廳

臨時로 設置한 機關은 大既廳이라 稱하였던 것으로 보아 中宗35年(1540) 4月17일에 實錄廳이 歷代 實錄의 膳寫를 畢하였다고 있음은 火災가 있어 全燒한 星州史庫의 燃失한 實錄을 다시 膳寫하기 為하여 設置된 臨時의 機關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星州史庫에 奉安한 實錄의 膳寫事業이 畢하면서 同時に 廢止된 것이라고 보겠다.

- ① 中宗實錄 卷93 中宗35年 4月戊寅,丙戌條

#### 第四節 佛 典

第二期에서의 佛教는 어느程度 國家가 공認하고 있었으므로 大圓覺寺의 建立을 비롯하여 刊經都監을 設置하여 佛典을 校訂하고 國譯刊行도 하였으며 大藏經을 五十部 印刷하였는데 第三期에 드러서서 부터는 中央宗務所의 廢止, 僧科의 罷等으로 國家와 佛教와의 公的인 關係는 끊어졌으나 第三期에서도 明宗時代에는若干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으나 大體로 弱化되어 갔다. 따라서 第三期에서는 佛典의 刊行이 別로 없었으나 다만 日本과 琉球로 부터 大藏經은 請求하고 있었다.

第三期中에 日本과 琉球로 부터 大藏經을 求하였다 사실을 年代順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燕山君6年(1500)11月17日 琉球 請

燕山君8年正月19日 日本 請

星州安峯寺所藏을 賦

燕山君8年(1502)4月20日 日本 請

中宗32年(1537)8月13日 日本 賦

中宗32年(1537)正月13日 日本 請

#### 第五節 圖書撰修暨 刊行

第三期에 있어서 燕山君이 �即位하기 까지는 崇文의 東室이 있었는데 即位後로는 甚히 亂暴하였다 在位中 東國輿地勝覽이 修正 完成된 것은 特記할 일이라고 하겠다. 中宗以後로는 黨爭을 일삼기는 하였으나 中興코자 하는 氣運이 있어 여러 圖書가 刊行되었다. 그間 刊行된 圖書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燕山君元年(1495)

- 對頴議顯等書의 刊行廣布를 命  
燕山君2年(1496)  
四書五經을 印하여 永安道에 賦  
成宗의 遺藁의 傳寫를 命  
燕山君4年(1498)  
世祖以後 三朝의 國朝寶鑑을 撰  
燕山君5年(1499)  
小學一帙의 開刊廣布를 命  
東國名家集中 未刊行分의 印出을 命  
燕山君6年(1500)  
金自貞, 李昌臣 日用漢語 碩譯草를  
明鑑의 印出을 命  
君臣明鑑撰集時 世祖朝以後의 寶鑑의  
併撰을 命  
成僕等에게 歷代明鑑 撰進을 命  
洪貴達等 繢國朝寶鑑을 撰進  
成僕 歷代帝王詩文雜著를 撰進, 印出  
을 命  
燕山君7年(1501)  
成俊等 西北諸著記及 西北地圖를 撰進  
東國輿地勝覽의 修正 完成  
燕山君8年(1502)  
吳益念 修身圖를 獻  
燕山君9年(1503)  
續綱目 數十件 印行  
燕山君10年(1504)  
西北諸著記를 印出  
校書館 端午帖子를 印進  
燕山君12年(1506)  
赴京使臣에게 聯芳集, 香臺集, 游藝錄,  
麗情集의 賀來를 命  
剪逆新話, 餘話의 印行을 命  
謝恩使에게 效鑾集, 嬌紅記, 西廂記  
等의 賀來를 命  
中宗4年(1509)  
大典及續錄의 印頒을 命  
中宗6年(1511)

- 柳崇祖 綱目十策, 性理淵源撮要等 獻  
開刊頒賜等 命
- 弘文館 天下圖等 進
- 崔淑精, 成倪, 曹偉, 俞好仁, 朴闡, 金  
孟性, 魏世謙, 金時習, 南孝溫等의 文集  
及 朴撣의 樂詞, 崔溥의 漂海錄等의 開  
刊을 命
- 唐鑑의 印出을 命
- 三綱行實의 2940秩을 印頒
- 中宗7年(1512)  
五禮儀註의 印出廣布等 命
- 三國史記, 三國遺事等 重刊
- 中宗8年(1513)  
黃衡 咸鏡道地圖等 進
- 中宗9年(1514)  
申用漑等 繢三綱行實等 撰進
- 中宗10年(1515)  
三綱行實의 廣賜等 命
- 中宗12年(1517)  
小學을 諺譯 中外에 印頒을 命
- 崔世珍 四聲通解等 撰進
- 中宗13年(1518)  
近思錄의 開刊을 命
- 申用漑等 東文選을 選進
- 諺解等 呂氏鄉約, 正俗二倫行實, 農書  
叢書, 脊蠹方, 瘡瘍方等의 印頒을 命
- 小學 1300件을 印賜
- 近思錄의 印頒을 命
- 通鑑纂要의 印頒을 命
- 語孟或問, 家禮儀節, 古表精粹의 印  
頒을 命
- 中宗17年(1522)  
皇后內訓의 印出을 命
- 弘文館, 東客啓蒙을 撰進 30件의 印  
出을 命
- 中宗18年(1523)
- 韓愈, 柳宗之의 文, 李白, 杜甫, 蘇  
軾 黃庭堅의 詩等 印出
- 中宗20年(1525)  
續辟蠹方을 諺解印出
- 辟蠹方을 中外에 頒賜
- 中宗22年(1527)  
崔世珍, 訓蒙字會等 撰進
- 中宗23年(1528)  
陣書, 兵將說, 兵政等의 印出廣布等  
命
- 中宗24年(1529)  
千字, 類合及 懸吐小學의 印出을 命
- 中宗25年(1530)  
皇極經世書集覽의 開刊을 命
- 李荇等 新增東國與地勝覽을 撰進
- 中宗27年(1532)  
崔世珍 女訓을 譯進 印出을 命
- 中宗31年  
古文眞寶等 頒賜
- 文苑英華의 開刊을 命
- 中宗32年(1537)  
皇華集 50件을 印出
- 崔世珍 韻會玉篇, 小學便蒙을 撰進  
刊行을 命
- 中宗33年(1538)  
金安國의 二倫行實의 印頒을 命
- 中宗34年(1539)  
崔世珍 大儒奏議, 皇極經世書說(吏文  
讀集輯覽)을 撰進
- 二倫行實을 頒賜
- 中宗35年(1540)  
韻府群玉, 雅音會編의 印出을 命
- 中宗36年(1541)  
崔世珍, 京城圖志, 女孝經, 遼東地圖  
等 進
- 中宗37年(1542)

柳希軫, 大東詩林, 大東聯珠詩格을  
撰進

魏鄭公諺錄의 印布<sup>한</sup>, 命  
中宗38年(1543)

銅人經, 直指脈, 產書, 胎產集의 印  
頒<sup>한</sup>, 命

烈女傳, 東魯王氏의 農書의 開刊을  
命  
中宗39年(1544)

朴世茂 童蒙先習을 刊行  
仁宗元年(1545)

小學諺解<sup>한</sup>, 印頒  
明宗元年(1546)

尹潔 琉球國風俗記<sup>한</sup>, 著  
柳大容 琉球風土記<sup>한</sup>, 著  
弘文館 心學圖說, 大學圖說<sup>한</sup>, 撰進  
明宗2年(1547)

綱目前編, 繼綱目發明廣義, 武經總要  
의 印出<sup>한</sup>, 命

尹齡 國朝寶鑑類抄<sup>한</sup>, 編進  
明宗3年(1548)

續武定寶鑑 이록  
明宗5年(1550)

黃疸, 瘡疾治療方의 印頒<sup>한</sup>, 命  
明宗6年(1551)

異瑞辨正의 印頒<sup>한</sup>, 命  
大明會典을 印出  
明宗7年(1552)

韓蚪 皇明祖訓을 獻  
明宗8年(1553)

天文, 醫書<sup>한</sup>, 印出  
李善註本의 刊行을 命  
明宗9年(1554)

三綱行實을 印頒  
聖學格物通의 印出<sup>한</sup>, 命  
救荒撮要<sup>한</sup>, 譯譯하여 印布<sup>한</sup>, 命  
明宗10年(1555)

經國大典註解 이록  
明宗13年(1558)

大典元典, 繼典, 繼集의 印出<sup>한</sup>, 命  
明宗22年(1567)

儀禮經傳通解의 印出<sup>한</sup>, 命

##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 1) 明

第一, 二期에서와 같이 第三期에서도  
明에 갔다가 도라오는 使臣들이 圖書를  
갖이고 와서 進학하였다. 第三期中에서 明  
으로부터 求해온 圖書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燕山君元年(1495)6月19日

明의 使臣이 大明一統志, 綱目通解<sup>한</sup>  
獻하였다.

燕山君元年(1495)7月9日

明으로부터 도라온 洪貴達이 論諫集  
을 獻하였다.

燕山君5年(1499)9月4日

明으로부터 도라온 金壽童이 聖學心  
法 4卷을 獻하였다.

燕山君8年(1502)3月24日

明으로부터 도라온 李秉正, 李昌臣  
이 靑囊雜纂, 玉音, 韻海, 切韻指南等  
을 獻하였다.

中宗13年(1518)9月12日

許旼이 明으로부터 通鑑纂要<sup>한</sup> 買來  
하였다.

中宗13年(1518)11月22日

金安國이 明으로부터 買來한 語孟或  
問, 家禮儀節, 古表精粹, 傳道粹言, 張  
子語錄, 經學理窟, 延平問答, 胡子知言  
등의 圖書를 獻하였다.

中宗17年(1522)11月6日

明으로부터 도라온 尹希仁이 皇明政

- 要一帙를 買來하였다.  
中宗20年(1525)2月27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許淳이 大禮會議  
를 進하다.  
中宗24年(1529)3月18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崔世節이 皇明政  
要를 買來하였는데 嘉靖政要를 잘못 購  
來한 것이다.  
中宗28年(1533)2月7日  
尹殷弼이 明으로 부터 新刊譜紳一覽  
을 買來하였다.  
中宗31年(1536)5月4日  
宋璵을 明에 造하여 天下地圖를 買來  
케 하였다.  
中宗31年(1536)11月2日  
宋璵 明으로 부터 文苑英華를 買來하  
였다.  
中宗33年(1538)2月22日  
冬至使 柳世麟이 吳希孟에게 皇華集  
을 傳하다.  
中宗33年(1538)5月19日  
毎年 天文, 地理, 命課學官員을 一人  
式 中國으로 가는 使臣에 隨行케 하여  
三學新書를 買來케 하였다.  
中宗34年(1539)3月9日  
北京에서 돌아온 鄭順朋이 皇明政要  
와 遼東志를 獻하였다.  
中宗37年(1542)5月7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金安國이 買來한  
圖書中 印行한 것을 抄啓하였는데 書名  
은 다음과 같다.  
春秋集解, 大明律讀法, 大明律直引,  
呂氏讀書記, 古文關鍵, 皇極經世書說,  
易經集說, 止齋集, 象山集, 赤城論諫  
錄, 古文苑, 集氏易林, 杜詩註解, 山  
海關志, 顏氏家訓等이다.  
仁宗元年(1545)4月29日  
明使에게 紙質이 좋은 四書五經及 東  
國地志를 紿하였다.  
明宗元年(1546)4月19日  
明으로 부터 돌아온 南世健, 尹溪 等  
이 明太祖의 高皇帝文集을 바치다.  
明宗2年(1547)4月4日  
丁應斗가 明으로 부터 買來한 綱目前  
編, 繼綱目, 發明廣義, 武經總要를 獻  
하였다.  
明宗7年(1551)3月16日  
申瑛이 明으로 부터 買來한 異端辨正  
을 獻한다.  
明宗7年(1552)2月6日  
韓蚪 明으로 부터 大明會典의 寫本을  
賣來하였다.  
明宗9年(1554)7月30日  
明으로 부터 買來한 聖學格物道를 印  
出케 하다.  
2) 日 本  
日本으로 부터는 恒時 大藏經을 求하여  
왔는데 大藏經에 對하여는 第四節 佛典에  
서 詳述하였으므로 大藏經을 除外한 一般圖  
書만을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燕山君7年(1501)9月16日  
日本의 使臣 朝中, 智瞻等이 東波詩  
集, 碧菴錄, 黃山谷等書를 求하였다  
이를 紿하였다.  
中宗23年(1528)8月17日  
日本 大內殿의 使者에게 醫書를 賦하  
였다.